

與 “G7 새 외교지평” 野 “왜곡 퇴색”

여야, 외통위서 문대통령 방문 성과 놓고 공방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방문 성과를 두고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외교의 새 지평이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왜곡으로 의미가 퇴색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순방을 동행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외통위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가졌던 지평을 확장했다”며 “북핵-한반도 중심 외교에서 코로나 방역, 경제, 디지털 경제, K팝, 문화 등의 영역을 다양화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국면의 급변하는 세계 질서에서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종건 외교부 차관은 “14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스페인에 방문했을 때 맺었던 공동선언문과 지금의 공동선언문을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위치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호응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G7 성과 홍보를 문제 삼았다. G7 정상회의 기념 사진에서 앞줄 가운데에 서 있는 문 대통령을 부각하기 위해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일부러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영국의 의전 원칙에 따라 자리를 정한 것인데, 박 수석은 한국이 중요한 위치에서 예우를 받았다고 한다”라며 “왜 이렇게 국민을 속이려 하나. 국민이 바보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차관을 지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문 대통령이 G7에 초청받은 것은 의미 있는 사건인데 선부르고 서투른 과잉 홍보로 성과를 퇴색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G7에서 활동한 것 자체로 홍보가 되는데, 잘못된 홍보로 성과를 퇴색시키는 점은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던 것에는 동의한다”며 “심각히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최 차관은 다만 “프랑스에서도 자국 대통령을 중심에 두고 우리 대통령을 절제된 사진을 홍보하기도 했다”며 “각 나라가 자기 대통령을 중심으로 사진을 홍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답변하는 김부겸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민주,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의원직 유지

윤호중 “국민의힘, 부동산 조사 빠져나가려 갖은 수법 써”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비례대표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을 제명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두 의원의 제명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결정하지 않고 과반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동의를 얻기 전 전반 의견 개진 기회를 드렸으나 발언한 의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나 부동산과 관계없는 사유인 경우는 복당을 허용하고, 복당이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 조사에서 윤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양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이 각각 제기됐고 당 지도부는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했다.

비례대표인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로 민주당 의석 수는 172명으로 줄었다. 나머지 지역구 의원 10명 가운데 탈당계를 제출한 6명까지 정식 처리되면 166명이 된다. 하지만 김한정·김희재·오영훈·우상호 의원 4명은 부당한 조처라며 탈당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 “차라리 하기 싫다면 싫다고 하지 국민을 우롱하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려는 태도를 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위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족들의 개인정보 활용등이 누락돼 조사를 못하고 서류 보완을 요청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조사해서 나오면 우리도 하겠다”고 석 달을 끌고, 권한이 없는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일주일 가량을 끌었다. 그리고 동의를 받는다거나 또 일주일 가까이 시간을 끌더니 이젠 그 동의서도 제대로 안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재명 지지 모임 ‘공명포럼’ 공식 출범

발기인 15만명 참여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국내외 지지자를 아우르는 공명포럼이 22일 공식 출범했다.

공명포럼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 출범식과 정책토크쇼를 열었다.

포럼에는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 30개국 100개 도시에서 발기인 15만명이 참여했으며, 14개 직능 분야와 36개 위원회가 구성돼 각각각종을 다양하게 포함했다. 안민석 정성호 김윤덕 의원이

상임 공동대표를, 김남국 문정복 민형배 박성준 이동주 홍정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종걸 민화협 의장이 소설가 황석영 씨와 함께 상임고문을 맡았다.

이철휘 전 육군대장, 남중웅 전국국공립대학교 수 노조위원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장만재 전 전남교육감, 전순욱 소장 공인연구원이사장, 김기준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등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지사는 원내 그룹인 성공포럼과 전국지지도 임인 민주평화광장에 이어 공명포럼까지 발족하며 지지 기반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결단만 남았다”...최재형, 사퇴 압박 관측

야권의 대권 잠룡으로 부상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결단을 앞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이미 공개적으로 대권 도전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최 원장의 고민은 감사원장직 사퇴 시점과 사퇴의 변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권 도전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생각을 정리해 조만간 밝히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는 국회 출석 이후 가까운 지인들과 사퇴 시점을 놓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장의 측근과우인 강명훈 변호사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혼자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일부러 연락하지 않고 있다”며 “스스로의 결단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최 원장과는 경기도,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동기, 고교 시절 소아마비로 거동을 못하는 자신을 최 원장이 업어서 등학교시킨 일화의

주인공이다.

최 원장은 지난 19일 PNR리서치가 미래한국연구소와 머니투데이 의뢰로 전국 성인 1003명에게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4.5%를 기록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지사,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이은 5위다.

정치권에서는 최 원장이 대권 도전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고, 이르면 이달 내에 감사원장직을 던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신의 정치 참여가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에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사퇴 직후야권의 러브콜에 즉각 응할지는 미지수다.

자신이 존재감을 드러냈던 월성원전 감사 등이 결국 정치적 행보를 위한 발판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與 단독 소위 통과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경우 적용 제외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이를테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 16일에 쉬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의 경우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당초 법안 처리가 수월하게 이

뤄질 것으로 전망됐던 대체공휴일법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 난색으로 보류된 것도 이 쟁점 때문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 법률 개정이 아닌 새로 법률을 제정하는 만큼 속도전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무리라는 지적도 행안위 안팎에서 나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 측은 사실상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면 광복절 대체공휴일은 ‘핀셋 적용’이 가능하면서도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정비할 시간을 갖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공휴일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법안 처리는 이날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제정안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와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연합뉴스

부동산 직거래 [토지·건물·임야] 매매·임대

-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9,190㎡, 트리나무15년생 105주와 7층(소나무, 백일홍, 목련, 벚나무, 함박꽃나무, 산수유, 은행나무) 총 1,810주 광주간 25분, 신실국도4차선 근접, 전원주택, 펜션, 물치장, 다목적 사용자, 조경수 포함 ㎡ 8만원
- 상가건물**
1)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아시안 주도로 사거리코너 점포8칸, 대238㎡ 연257.8㎡ 주변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중 문화전당 연계 집중개발 투자 최상 매99천만원 보1천6백 월2백만원 상업지역
2) 광주 북 오치동, 4층 대384㎡ 연998㎡ 사거리코너 요지 1층 점포6칸 매16억 5천만원 보2억 월6백6십만원
- 전원주택, 가든, 펜션 용지**
1)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70m접 계획관리지역 전·담 4,363㎡ 덕진산자락 남향 경관수려 ㎡14만원
2) 화순 북면 옥리, 금포온천 정문 입구 도로점 계획관리지역 전531㎡ 매㎡18만원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용지(주거2중) 분할 가**
1)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15분 공용주차장, 도로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시장 근접, 교통요지 담4,220㎡(1,276평) 매㎡ 7십만 ※ 분할매매가
- 임야(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등 포함 7만6천㎡ 광주간45분 4차선국도근접 완도간 고속도로 2023년 완공시 영암 IC 300m 지점 이용, 광주간25분 소요, 마을변방 편백 휴양림 1만주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대형차 출입기 귀촌자 최상 ㎡당 6천원 (매매)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20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5,810㎡(전포함) 지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방제림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적합 매㎡4만원 (매매)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한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적지 현지직성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2만원 (매매)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25분, 농림지역 도로점 62,740㎡ 휴양림 적용 다수 자생 생약재, 캠프장, 농가주택가 ㎡5천원 (매매)
- 건축물 임대(상가, 투룸)**
1) 사무실용 기타(현 마트) 광주, 서, 농성동 돌고개역 근접, 4차선 대로변 7층건물 중 1층 135㎡ 내부깨끗 대형주차장(부실·참고·화장실) 보증금2천만원 월110만원
2) 광주 동 대인동시장 내 점포 아시안 주도로, 사거리코너 11㎡(약3평) 전시장, 먹거리, 건물기타 다목적 사용자, 보3백 월30만원
3) 투룸임대 광주, 서, 농성동 돌고개역 양동시장 근접 3층 52㎡ 풀옵션 정남향 엘리베이터 도시가스 대형주차장 보2백만원 월30만원 즉시 입주

※ 부동산 직거래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 188-8 **H. 010-3612-9262**

상가 매매 (상무지구)

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 3천 (용 4억)

2) 월수익 300만, (보 4천) 임대료

3) 평수 140평, (전용 100평)

- ☑ 중심상업지역 메가박스 영화관 앞
- ☑ 사무실, 바, 유희룸, 모든 업종가능

(즉시 업무가능, 시비없음)

장성토지 (분양 매매)

광주에서 20분(6M 도로점)
장성댐(호) 2분, 장성 IC, 5분

토지평수

(150평, 200평, 500평, 1800평)

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

010-6670-9800 010-8660-9801